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줄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여당당

## 여성NEWS

여성이 바로 서야 고성이 산다

여당당: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다.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

# 순수함과 따뜻한 미소로 고객에 친절봉사

## ‘미소천사’ 간성우체국 금융팀 배지혜씨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해요.”

늦더위의 기세가 다소 수그러든 비오는 어느 날, 간성우체국을 찾아 주위로부터 ‘미소천사’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간성우체국 금융팀 배지혜씨(25세, 사진)를 만났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을 맞아 환한 웃음과 미소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그녀의 모습에 역시나 하는 감탄을 받을 수가 있었다.

배 씨는 속초시 금호동에서 3녀중 2째로 태어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속초에서 즐겁고 직장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다. 아르바이트로 우체국에서 보조업무로 일하던 중 행정인턴을 뽑는다는 말을 듣고 지원해 합격한 것이다.

비록 기간이 정해진 인턴 직장생활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근무했던 그녀는 인턴기간이 끝날 무렵 우체국이라는 직장에 매력을 느껴 정식직원이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해 7월 우체국 계

리원 시험을 도전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정말이지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장기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보니 행운이 나에게도 왔네요. 합격소식에 가족들과 얼마나 기뻐던지...”

지난해 10월 1일 간성우체국으로 첫 발령을 받은 그녀는 업무가 익숙치 않아 고객과 동료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았지만, 주위로부터 격려가 있어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배씨는 어렵게 공부를 한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다고 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 탓에 남에게 부담감을 주질 않는 성격인 그녀는 장애인 자립원을 운영하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봉사활동도 적극적이다.

지금도 부모와의 갈등이 한번도 없는 효녀다. 시간을 쪼개 장애인 자립원을 찾아 봉사활동도 활발히 펼쳐 주위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다.

배씨는 가족에 대해 “나의 희망이죠. 그



리고 행복이구요. 힘이 들때면 항상 가족을 떠올리거든요. 그럼 웃음이 절로 나오. 이게 희망이라 생각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배씨의 직장 동료인 간성우체국 송동순 대리는 “지혜씨의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을 우리 기관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들이 알아

주시는 것 같다”며 “매사에 친절봉사를 실천하는 그녀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배지혜씨는 “친절 봉사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회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최고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힘껏 뛰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박승근 기자

## 한여농 한마음대회 29일

소동령마을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막걸리가 좋아요’ 주제

한국여성농업인 고성군연합회(회장 안재숙)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간성읍 장신 2리 소동령마을에서 회원가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막걸리가 좋아요’라는 주제로 회원간의 단합은 물론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성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한마음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걸리 시음회 및 명랑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막걸리 시음회에서는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등 5개 읍면의 회원이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 빚은 흑미막걸리, 다시마잡쌀막걸리, 녹차막걸리, 솔잎막걸리, 인삼막걸리를 선보인다.

또 각종 향암성분인 파네졸과 비타민B군, 유산균 및 식이섬유에 주목해 건강식품으로 막걸리가 각광받고 있어 우리 전통식품인 막걸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저온현상과 장마 등으로 인한 농사의 애로와 수고를 서로 격려하며 회원간의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근 기자

## 다문화가정 여성들 ‘나 사랑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미술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혜경)는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증 극복을 위해 ‘나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미술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미술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소중한 ‘나’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형성된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나’를 인정하고 사랑함은 물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미술집단 상담은 지난 19일과 오는 26일, 다음달 2일과 9일 4회 실시된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복순 소장(준천가족상담센터 및 한림미술치료센터)이 나와

고성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 여성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여성회관 교육실에서 운영된다.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미술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구성원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왜곡되었거나 상처받은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힘을 만들고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함께 공유함은 물론 다문화가정 여성의 행복 증진과 함께 가족 전체의 안정성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승근 기자

읽고 난 고성신문은 이웃과 함께 보세요